

청소년의 자기노출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

간 호 과

부 교 수 전 은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과 2차 성징의 출현 등 신체적으로 변화가 오며 독립된 행동을 하려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두드러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완전한 가운데 끊임없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됨과 동시에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때로는 정신적 불안과 갈등을 겪는 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에 대한 의존적 상태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독립된 행동을 하려하며 복잡다양한 생각과 인동이 급격히 변동하여 이른 바 성장에 따르는 진통이 심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¹⁾.

또한 청소년기는 심리적 긴장과 불안이 축적되는 정서적 격동기이며 아동기의 낮은 체제가 무너지고 성인기의 새로운 발달체계에 맞게 자기를 재체제화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²⁾.

따라서 청소년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당면문제나 정신적 갈등에 직면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위에 표출하므로써 갈등하고 있는 문제나 관심사를 합리적,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이로써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상호간의 이질감을 감소시키고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Jourard³⁾는 자기자신을 남에게 드러내어 보이는 일을 최초로 “자기노출”이라 정의하고 자기노출이 바로 건강한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건강한 성격을 성취하기 위한 한 수단이 된다고 하였으며 낮은 자기노출과 신체질환 및 정신질환, 건강하지 못한 인격, 부적응 그리고 비효과적인 대인관계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일찌기 Marie Jahoda는 정신건강의 기준으로 자신에 대한 태도, 개인적 성장발

달과 자기실현, 통합력, 자율성, 현실에 대한 왜곡되지 않는 지각, 환경지배 등을 들었는데⁴⁾ 일반적으로 높은 IQ에 학습성취도가 높고 비교행동특성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소위 영재성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자율성, 자발성이 높고 자긍심이 강하며 정서적 안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사고의 융통성을 가지며 대인관계에서 얽힘을 싫어하고 지적, 정서적 취미활동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⁵⁾. 따라서 이들 학생들은 대부분의 보통 학생, 즉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IQ가 낮고 학습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비해 보다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긍정적 자아개념이 강하고 문제나 상황에 대한 적응력 및 자기목표 실현의 동기가 높기때문에 이들의 대부분은 정신건강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보면 이들은 자기노출에 있어서도 특이적 반응을 나타내리라 추정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노출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IQ가 높고 학습성취도 및 행동평가 등급이 높은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으로 IQ가 낮고 학습성취도 및 비교행동 평가 등급이 낮은 학생들의 자기노출 특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자기노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며 청소년들의 일반적 자기노출 특성, 자기노출 대상 등을 조사 분석하여 원만한 사회활동 도모와 정신건강 실행에 도움을 줌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을 대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표현하는지와 학교생활에서의 태도를 비교함에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 1)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다
- 2)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자기노출 대상과 자기노출량, 자기노출 항목을 알아본다

3. 연구의 제한점

연구대상을 2개 고등학교에서 임의 추출하고 표본수가 적으므로 전 집단을 대표한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집단에 확대 해석할 경우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4. 용어의 정의

1) 자기노출 : 한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언어를 사용하여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Jourard가

만든 25문항의 자기노출 점수로 측정하였다.

2)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 IQ가 평균 147=4이상이고 학습성취도가 높은 영재집단을 실험집단이라 하고 IQ 102=3, 학습성취도, 행동비교 발달 등급이 낮은 집단을 대조집단이라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자기노출의 개념

Jourard와 Lasakow⁶⁾는 심리학적 전문용어로서 자기노출의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고 자기노출을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알도록 해주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Jourard⁷⁾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노출을 “어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중요한 타인에게 드러내어 놓는 것”으로 진술 즉 자기노출을 정보의 전달 그 자체로 해석하였으며 Halverson과 Shore⁸⁾도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므로써 동일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1973년 Cozby⁹⁾는 자기노출을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자기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므로써 자기노출을 언어적 과정으로 한정적으로 정의한 반면, Shapiro, Krauss와 Trauax¹⁰⁾는 자기노출이 언어적으로는 물론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Dies¹¹⁾등은 자기노출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자기노출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나 자신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나 관심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이야기 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나 다른 사람의 경험과 관심사 그 밖의 주변상황에 대하여 가지는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상의 자기노출에 대한 개념 정의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기노출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언어 및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해 현재 자기 자신의 느낌과 사고, 반응을 사실대로 들추어 내어 보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에 대한 관심사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사실대로 나타내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2. 자기노출에 대한 연구 동향

자기노출과 관련된 각종 변인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먼저 성별과 자기노출에 대한 연구로 Himelstein과 Lubin¹²⁾, Jourard¹³⁾, Jourard와 Lasakow, Pederson과 Breglio¹⁴⁾, Haod와 Back¹⁵⁾, George와 Harvey¹⁶⁾등은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자기노출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여기서 Jourard는 남성의 자기노출량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여성에 비해 감정이없이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

족하며 일생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데 대한 만성적 스트레스, 남성의 생애가 여성보다 짧다는 점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한편 Dimond와 Hellkamp¹⁷⁾, Vondracek와 Marshall¹⁸⁾, Linda¹⁹⁾, 김선중²⁰⁾, 김옥현²¹⁾ 등 다수의 연구결과에서는 자기노출에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따라서 성차에 따른 자기노출정도는 비일관적으로 달라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자기노출량이 여성보다 더 많다는 연구보고는 없다.

출생순위와 자기노출의 경우 Dimond와 Munz²²⁾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자녀보다 첫째가 아닌 자녀들이 자기노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한편 맏이와 중간 자녀의 자기노출량에는 차이가 없다는 보고²³⁾ 등이 있다.

종교와 자기노출과의 관계에 대한 Jourard의 연구에서 보면 남자유태인 대학생들이 침례교도, 감리교도, 카톨릭교도들의 집단보다 더 많은 자기노출을 한 반면 여성집단에서는 어떤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노출과 상대방을 좋아하는 정도 사이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자신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해 주며 자기노출은 더욱 그를 좋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연구보고²⁴⁾가 있으며 자기노출과 가족상황 관계에 있어서는 가정의 양육수준이 높다고 지각하는 피험자가 낮다고 지각하는 피험자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은 자기노출을 하며 따라서 양육조건이 낮다고 지각하는 피험자는 부모보다 친구에게 더 많이 노출하고 양육조건이 높다고 지각하는 피험자는 친구보다 부모에게 더 많이 노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²⁵⁾.

자존감의 정도와 자기노출량에 대한 Maureen²⁶⁾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존감의 정도가 다른 두 사람에게서 자기노출량이 같은 반면 노출원인은 달랐는데 이것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태도나 의견을 가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에 관한 정보를 노출한 것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감을 갖기위해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키거나 타인의 칭찬과 수용을 통해 정보의 가치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노출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K시내 고등학생 중 실험집단으로는 I.Q가 높고 학습성취도가 높으며 행동비교 발달등급이 높은 K고교 1학년 학생 60명과 대조집단으로는 IQ가 낮고 학습성취도가 낮으며 행동비교 발달등급이 낮은 G고교 1학년 학생 60명을 임의 선정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집단의 행동발달특성은 생활기록부상에 기재된 행동발달 상황 7개 항목 즉 근면성(diligence), 책임감(responsibility), 자주성(independence), 협동성(cooperative spirit), 준법성(law abiding spirit), 예절성(propriety), 창의성(creativity)의 각 항목 평가수준인 가, 나, 다를 각각 3점, 2점, 1점으로 환산하여 전체 평균을 계산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6년 3월 1일 부터 30일까지 1달 동안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학교장님께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허락을 받은 후 담임선
 생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려 학생들이 직접 설문에 응답케 하였다.

2. 연구 도구

Jourard Self-Disclosure Questionnaire(JSDQ)는 자기노출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Jourard가 개발한 것이다. 내용은 태도, 취향, 직업, 금전, 인격, 신체에 관한 6
 개의 요인을 각각 10문항씩으로 하여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노출대상 즉 아
 버지, 어머니, 동성친구, 이성친구에게 어느정도 노출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Jourard가 만든 25문항의 간략형 자기노출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노출대상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동성친구, 이성친구, 성직자로 수정하였다.

채점방법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거나 일부러 적당히 꾸미거나 거짓말을 한다”가
 0점, “막연하게 피상적인 이야기만 한다”가 1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한
 다”가 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노출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
 리한 후 백분율, 평균, t-test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행동발달특성 비교

두 집단간의 행동발달특성 비교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행동발달특성 비교

	I.Q. ^{a)}	Record ^{b)}	Levels of behavior patterns ^{c)}						
			근면성	책임감	자주성	협동성	준법성	예절성	창의성
실험집단	147±4	187.5±3/200	2.80	2.92	2.81	2.90	2.93	2.91	2.95
대조집단	102±3	88.5±3/200	1.50	1.52	1.49	1.53	1.48	1.46	1.45

a) Intelligence Quotient

b) Student's record of the entrance examination to high school

c) Behavioral levels of 가, 나, 다 were 3, 2 & 1 respectively

1. 실험집단의 I.Q.는 147 ± 4 , 수학능력고사의 점수는 200점 만점에 평균 187.5 ± 3 이었으며 대조집단은 I.Q. 102 ± 3 , 수학능력고사의 평균점수는 88.5 ± 3 으로 나타났다.
2. 행동발달 특성은 실험집단의 경우 3.0만점에 평균 2.80점으로 우수한 반면 대조집단은 1.49점으로 근면성, 책임감, 자주성, 협동성, 준법성, 예절성, 창의성 모두에서 실험집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2.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일반적 특성 비교

두 집단의 일반적 특성 12개 항목의 비교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일반적 특성 비교

일반적 특성	구 분	실험 집 단		대 조 집 단	
		N = 60		N = 60	
		실수 (명)	비율 (%)	실수 (명)	비율 (%)
종 교	기 독 교	13	21.7	25	41.7
	불 교	7	11.7	10	16.7
	천 주 교	14	23.3	4	6.6
	유 교	1	1.7	1	1.7
	무 교	23	38.3	18	30.0
	기 타	2	3.3	2	3.3
출 생 순 위	장 남	30	50.0	15	25.0
	중 간	7	11.7	18	30.0
	막 내	19	31.7	25	41.7
	독 자	4	6.6	2	3.3
부 모 의 생 존 여 부	부모 생존	60	100.0	51	85.0
	부모 사망	0	--	0	--
	편 부	0	--	2	3.3
	편 모	0	--	7	11.7
경 제 상 태	상	2	3.3	0	--
	중	57	95.0	55	91.7
	하	1	1.7	5	8.3
가 족 제 도	핵 가 족	58	96.7	50	83.3
	대 가 족	2	3.3	10	16.7

일반적 특성	구 분	실험 집단		대조 집단	
		N = 60		N = 60	
		실수 (명)	비율 (%)	실수 (명)	비율 (%)
부친의 직업	전문직	9	15.0	0	--
	회사원	13	21.7	12	20.0
	교원	17	28.3	1	1.7
	사업	14	23.3	10	16.7
	농업	0	--	8	13.4
	노동	0	--	5	8.3
	무직	0	--	2	3.3
	기타	6	10.0	17	28.3
모친의 직업	비해당	1	1.7	5	8.3
	유무	22	36.7	38	63.3
부친의 교육수준	국졸	0	--	10	16.7
	중졸	1	1.7	21	35.0
모친의 교육수준	고졸	17	28.3	17	28.3
	대졸	25	41.7	11	18.3
	대학원졸	17	28.3	1	1.7
	국졸	0	--	14	23.3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졸	10	16.7	23	38.3
	고졸	27	45.0	16	26.7
	대졸	22	36.6	6	10.0
	대학원졸	1	1.7	1	1.7
가정내 문제점	진로	32	53.3	30	50.0
	이성문제	5	8.3	10	16.7
	건강	5	8.3	7	11.7
	성격	4	6.7	9	15.0
	적응문제	14	23.3	4	6.6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문제	2	3.3	10	16.7
	형제사이나쁨	5	8.3	6	10.0
	부모사이나쁨	8	13.4	1	1.7
	가족과의대화시간부족	45	75.0	43	71.7
양육태도	사랑	31	51.7	29	48.3
	자율	28	46.7	14	23.4
	구속	0	--	2	3.3
	무관심	0	--	5	8.3
	강요	1	1.7	9	15.0
	무시	0	--	1	1.7

1. 종교는 실험집단의 경우 38.3%가 종교를 갖고있지 않은 반면 대조집단에서는 기독교가 41.7%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에서 종교를 갖고있는 비율은 각각 58.4%, 66.8%로 대조집단이 더 높았다.
2. 출생순위는 실험집단에서는 장남과 막내의 비율이 각각 50.0%, 31.7%로 중간에 비해 높은 반면 대조집단은 중간이 30.0%로 장남보다 높고 독자의 경우 양 집단에서 모두 6.6%, 3.3%로 낮았다.
3. 부모의 생존여부는 두 집단에서 양친슬하가 85.0% 이상이었으며 실험집단에서 편부, 편모슬하가 전무한 반면 대조집단에서는 편부, 편모슬하가 각각 3.3%, 11.7%이었다.
4. 경제상태는 두 집단에서 “중”이 각각 95.0%, 91.7%로 비슷하게 높았다. 실험집단에서 “상”이 3.3%로 대조집단보다 높는데 반해 대조집단에서는 “하”가 8.3%로 실험집단보다 높았다.
5. 가족제도는 두 집단에서 핵가족이 각각 96.7%,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6. 부친의 직업은 실험집단의 경우 전문직(15.0%), 교원(28.3%)의 비율이 대조집단보다 현저하게 높고 전문직, 회사원, 교원, 사업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조집단은 농업, 노동, 무직등의 비율이 높았다.
7. 모친의 직업 유무는 실험집단보다 대조집단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친의 비율이 더 높았다.
8. 부친과 모친의 교육수준은 실험집단에서는 고학력으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대조집단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9.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두 집단 모두 진로문제가 각각 53.3%, 50.0%로 현저하게 높았다. 대조집단에서는 이성문제, 성격문제가 문제점이 되고 있는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적응의 문제가 23.3%로 나타나 특이하였다.
10. 가정내의 문제점으로 두 집단 모두 가족과의 대화부족이 75.0%, 71.6%로 매우 높게 나타나 심각한 문제점이 되고 있었으며 대조집단의 경우 실험집단과 다르게 경제문제(16.7%)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11.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험집단에서는 사랑과 자율이 각각 51.7%, 46.7%로 높고 구속, 무관심, 강요가 거의 없는 반면 대조집단의 경우는 강요, 무관심이 각각 15.0%, 8.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3.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전체 노출정도 비교

두 집단의 전체 노출정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전체 노출정도

집 단	M	SD	T	DF	Pr>T
실험 집단	132.51	43.16	8.43*	75	0.000
대조 집단	54.42	37.33			

N=60

* P < .001

실험집단의 자기노출점수의 평균은 132.51, 대조집단은 54.42로 실험집단이 대조 집단보다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43, P=0.000)

4.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대상별 노출정도 비교

두 집단의 대상별 자기노출정도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표 4. 대상에 따른 자기노출정도

대 상	집 단	M	SD	T	DF	Pr>T
아버지	실험 집단	27.73	11.57	8.24**	117	0.000
	대조 집단	11.20	10.26			
어머니	실험 집단	31.45	10.58	9.14**	118	0.000
	대조 집단	13.60	10.82			
형 제	실험 집단	29.61	10.64	7.02**	115	0.000
	대조 집단	15.58	10.96			
동성친구	실험 집단	29.95	9.42	7.14**	118	0.000
	대조 집단	15.17	12.97			
이성친구	실험 집단	11.54	12.75	2.07*	93	0.040
	대조 집단	6.74	8.99			
성직자	실험 집단	3.66	8.94	0.93	88	0.354
	대조 집단	2.17	5.94			

N=60

* P < .05

** P < .001

1. 아버지에게 노출하는 자기노출점수의 평균은 실험집단은 27.73, 대조집단은 11.20으로서 실험집단의 자기노출정도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24$, $P=0.000$)
2. 어머니에게 노출하는 자기노출점수의 평균은 실험집단은 31.45, 대조집단은 13.60으로서 실험집단이 자기노출정도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9.14$, $P=0.000$)
3. 형제에게 노출하는 자기노출점수의 평균은 실험집단은 29.61, 대조집단은 15.58으로서 실험집단의 자기노출정도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7.02$, $P=0.000$)
4. 동성친구에게 노출하는 자기노출점수의 평균은 실험집단은 29.95, 대조집단은 15.17로서 실험집단의 자기노출정도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7.14$, $P=0.000$)
5. 이성친구에게 노출하는 자기노출점수의 평균은 실험집단은 11.54, 대조집단은 6.74로서 실험집단의 자기노출정도가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07$, $P=0.040$)
6. 성직자에게 노출하는 자기노출점수의 평균은 실험집단은 3.66, 대조집단은 2.17로서 실험집단의 자기노출정도가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93$, $P=0.354$)

이상의 결과를 검토해 볼 때 성직자를 제외한 아버지, 어머니, 형제, 동성친구, 이성친구의 모든 척도에서 실험집단의 자기노출정도는 대조집단보다 높고 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 $P<0.001$)가 있었으며 실험집단은 자기노출대상이 어머니, 동성친구, 형제, 아버지로 비슷한 반면 대조집단은 형제와 동성친구에게 자기노출을 많이 하고 두 집단 모두 이성친구, 성직자에 대한 자기노출은 적었다.

이는 상대가 이성인 경우 자기노출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Linda Brooks¹⁹⁾의 보고와는 대조적이었으며 동성친구에게 흥미를 털어놓고 자기표현을 많이 한다는 정순아²⁷⁾의 보고와는 비슷한 경향이였다.

5.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문항별 노출정도 비교

(각 문항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가선용의 종류에 대하여
2. 좋아하는 파티나 친구와의 모임에 대하여
3. 좋아하는 독서의 종류에 대하여
4. 음악감상의 종류에 대하여
5. 즐기는 스포츠종류에 대하여
6. 카드, 화투, 바둑놀이를 좋아하는지에 대하여

7. 술을 마시는지의 여부와 마신다면 술의 종류에 대하여
8. 좋아하는 음식들과 요리방법에 대하여
9. 종교를 믿는지의 여부와 종교집회에 나가는 빈도에 대하여
10. 동아리나 공공단체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와 그 동아리의 이름에 대하여
11. 잘하는 특기나 기술에 대하여
12. 좋아하는 스포츠관람에 대하여
13. 여행했거나 살았던 마을이나 도시에 대하여
14. 현재 정치적 생각이나 견해에 대하여
15. 전에 연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와 어떻게 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16. 자신의 보호와 행복에 직접으로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이름에 대하여
17. 자신이 고치고자 하는 결점이나 현재 어떤일을 하고자 노력하는 일에 대하여
18. 현재 자신이 빛을 지고 있는지,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19. 장래 목적이나 희망하는 직업에 대하여
20. 현재 이성교제나 자위행위에 대하여
21.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지, 하고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22. 성격에 대한 문제나 걱정(죄의식, 열등감 등)에 대하여
23. 자신의 외모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24.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25. 용돈에 대해 느끼는 생각에 대하여

두 집단의 문항별 노출정도는 표 5와 같다.

표 5. 문항별 노출정도

문항	집단	M	SD	T	DF	Pr>T
1	실험 집단	6.88	2.10	7.29**	73	0.000
	대조 집단	3.24	2.22			
2	실험 집단	5.95	2.38	6.32**	72	0.000
	대조 집단	2.64	2.06			
3	실험 집단	4.59	2.83	3.38**	74	0.001
	대조 집단	2.60	2.19			
4	실험 집단	5.34	2.49	4.52**	74	0.000
	대조 집단	2.77	2.44			

문항	집단	M	SD	T	DF	Pr>T
5	실험 집단	6.68	1.98	9.13**	74	0.000
	대조 집단	2.14	2.35			
6	실험 집단	4.92	2.60	4.67**	72	0.000
	대조 집단	2.26	2.28			
7	실험 집단	5.00	4.06	4.94	68	0.000
	대조 집단	1.28	1.82			
8	실험 집단	5.51	2.27	4.62**	74	0.000
	대조 집단	3.20	2.06			
9	실험 집단	6.08	3.66	5.36**	73	0.000
	대조 집단	2.00	2.79			
10	실험 집단	6.05	2.21	9.14**	74	0.000
	대조 집단	1.14	2.46			
11	실험 집단	6.32	2.22	5.90**	74	0.000
	대조 집단	2.94	2.76			
12	실험 집단	6.17	2.41	6.90**	74	0.000
	대조 집단	2.05	2.77			
13	실험 집단	6.22	2.50	5.89**	74	0.000
	대조 집단	2.66	2.76			
14	실험 집단	3.61	2.93	4.58**	74	0.000
	대조 집단	1.00	1.79			
15	실험 집단	3.82	3.17	4.06**	71	0.000
	대조 집단	1.31	1.87			
16	실험 집단	4.60	3.12	4.70**	73	0.000
	대조 집단	1.54	2.40			
17	실험 집단	5.51	2.64	4.96**	74	0.000
	대조 집단	2.69	2.27			

문항	집단	M	SD	T	DF	Pr>T
18	실험 집단	4.33	3.41	3.76**	72	0.000
	대조 집단	1.71	2.44			
19	실험 집단	4.22	2.53	5.13**	74	0.000
	대조 집단	1.71	2.44			
20	실험 집단	2.92	3.23	3.01*	70	0.004
	대조 집단	1.14	1.38			
21	실험 집단	5.80	2.35	7.62**	74	0.000
	대조 집단	1.69	2.35			
22	실험 집단	5.15	2.62	6.07**	74	0.000
	대조 집단	1.91	1.88			
23	실험 집단	5.44	2.98	3.89**	74	0.000
	대조 집단	2.89	2.70			
24	실험 집단	6.17	2.56	4.77**	74	0.000
	대조 집단	3.23	2.82			
25	실험 집단	5.20	2.67	3.85**	74	0.000
	대조 집단	2.91	2.45			

N=60

* P < .01

** P < .0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문항에서 실험집단은 대조집단에 비해 타인에게 자기노출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P < 0.001$)

또한 자기노출정도가 높은 문항을 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여가선용의 종류, 즐기는 스포츠 종류에 대하여, 종교를 믿는지의 여부와 나가는 빈도에 대하여, 동아리나 공공단체의 소속여부와 이름에 대하여, 잘하는 특기나 기술에 대하여, 여행했거나 살았던 마을이나 도시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등에서 자기노출 평균이 6.0 이상이었으며 대조집단의 경우는 여가선용의 종류, 좋아하는 음식들과 요리방법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문제 등이 평균 3.0 이상이었다. 특히 현재 정치적 생각이나 견해에 대하여, 전에 연애했던 경험이나 결과에 대하여, 현재 이성교제나 자위행위에 대하여 등의 항목의 경우 두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자기노출이 극히 낮았다.

V. 결론 및 재언

본 연구는 인간관계가 황폐화되고 대화의 단절속에서 허무감, 소외감, 고립감만 팽창되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를 점점 기피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신체와 여러가지 새로운 자극요인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데 있어 수치심과 갈등, 당혹감, 우울, 분노 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감정상태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억제하여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므로 사회적인 소외 및 부적응행위를 초래하기 쉬운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이나 학교, 사회의 지도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연구기간은 1996년 3월1일부터 30일까지 1달동안이었으며 K시에 위치한 2개 고등학교학생 총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Jourard가 개발한 간략형 자기노출질문지와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12문항의 설문이었으며 질문지법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program에 의해 백분율, 평균, t-test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집단은 I.Q가 147 ± 4 , 수학능력고사의 점수는 $187.5 \pm 3/200$ 이며 대조집단의 I.Q는 102 ± 3 , 수학능력고사는 $88.5 \pm 3/200$ 이었으며 근면성, 자주성, 협동성, 준법성, 예절성, 창의성등 행동특성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실험집단이 대조집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종교는 실험집단보다 대조집단이 종교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실험집단은 무교가 가장 많은 반면 대조집단은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출생순위는 실험집단은 장남이 가장 많았고 대조집단은 막내가 가장 많았으며 실험집단은 중간이 적은 반면 대조집단은 30.0%로 많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독자는 적었다.
4. 부모의 생존여부는 양쪽 모두 부모생존이 100%, 85.0%로 가장 많았으며 편부, 편모는 대조집단에서 3.3%, 11.7%이었다.
5. 경제상태는 양쪽 모두 중간계층으로 나타났다.
6. 가족제도는 양쪽 모두 핵가족이었다.
7. 부친의 직업은 실험집단은 교원, 전문직이 많은 반면 대조집단은 농업, 노동, 무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 모친의 직업유무는 모친이 직업을 갖고있는 경우가 대조집단이 실험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 부친의 교육수준은 실험집단은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조집단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모친의 교육수준은 실험집단의 경우 고졸이 가장 많은 반면 대조집단은 중졸

- 이 많아 실험집단이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모두 진로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실험집단은 적응문제가 두번째인 반면 대조집단은 이성문제가 문제점이었다.
 12. 대상자가 인지한 가족내 문제점에서는 실험집단, 대조집단 모두에서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험집단에서는 사랑과 자율이 중요시 되고 있는 반면 대조집단에서는 강요, 무관심도 각각 15.0%, 8.3%로 나타났다.
 14. 실험집단과 대조집단간의 전체 자기노출정도와 문항별 자기노출정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실험집단이 대조집단보다 타인에게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 집단 모두 여가선용, 장래 목적과 자신의 건강문제 등에서 많은 자기노출을 하는 반면 이성교제나 자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기노출을 거의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실험집단과 대조집단간의 대상별 자기노출정도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은 어머니에게 가장 많은 자기노출을 하고 대조집단은 형제에게 자기노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용한 도시와 지방청소년 집단의 자기노출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의 비교 연구와 남,여의 자기노출량 및 정신건강과 자기노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연구결과를 청소년 지도에 적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1. 한동세, 정신과학, 서울, 일조각, 66 (1983)
2. 함종찬, 청소년 이해를 위한 접근, 서울, 상조사, 11~340 (1980)
3. Jourard, S.M. : *The Transparent self*, 2nd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71)
4. 이광자, 정신건강간호학, 서울, 수문사 (1978)
5. 한종하, 영재교육수행방안, 서울, 문교부, 14~17 (1982)
6. Jourard, S.M. & P. Lasakow : Some factors in self-disclosure, *J. of Soc. Psychol*, **56**, 91~98 (1958)
7. Jourard, S.M. : Self-disclosure :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 transparent self, *J. of Social Psychology*, **65**, 202 (1965)
8. Halverson, C.G. Jr., & Shore, R.E. : Self-disclosure and Interpersonal Functioning,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3~217 (1969)
 9. Cozby, P.C. : Self-disclosure :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79**, 73~91 (1973)
 10. Shapiro, G.S., Krauss, H.H. & Traux, S.B. : Therapeutic conditions and disclosure beyond the therapeutic encounter, *J. of Counseling Psychology*, **13**, 290~294 (1969)
 11. Dies, R.R. : Group therapist self-disclosure : An evaluation by clients, *J. of Counseling Psychology*, **20**, 344~348 (1973)
 12. Himelstein, P. & Lubin, B. : Attempted validation of the self-disclosure, *J. of Clinical Psychology*, **34(4)**, 870~875 (1965)
 13. Jourard, S.M. : *The Transparent Self*, Princeton, N.J.; Van Nostrand (1963)
 14. Pederson, D.M. & Breglio, V.J. : Personality correlates of actual Self-disclosure, *Psychological Reports*, **22**, 495~501 (1968)
 15. Hood, T.C. & Back, K.W. : Self-disclosure and the volunteer; A source of bias in laboratory experiment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130~136 (1971)
 16. George, G. & Harvey B. : Is self-disclosure self revealing?, *J. of counseling Psychology*, **23**, 327~332 (1976)
 17. Dimonde, R.E. & Hellkamp, D.T. : Race, Sex, Ordinal position or birth, and self-disclosure in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235~238 (1969)
 18. Vondracek, F.W. & Marshall, J.J. : Self-disclosure and interpersonal trust; An exploratory study, *Psychological Reports*, **28**, 235~240 (1971)
 19. Linda Brooks : Interactive effects of sex and status on self-disclosure, *J. of Counseling Psychology*, **21(6)**, 469~474 (1974)
 20. 김선중, 대학생들의 자기노출에 관한 일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21. 김옥현, 자기노출과 불안과의 관계, *이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22. Dimond, R.E. & Munz, D.C. : Ordinal position of birth and self-disclosure in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21**, 829~833 (1967)
 23. 김종희, 자기노출과 자아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일 연구, *고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0)
 24. Worthy, M., Gray A.L. : Self-disclosure as an exchange proces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59~63 (1969)

25. Doster, J.A. & Strickland, B.R. : Perceived child-rearing practices and self-disclosure pattern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382 (1969)
26. Maureen, P. Fitzgerald : Self-disclosure and expressed self-esteem, Social distance & areas of the self revealed, *J. of Psychology*, 56, 405~412 (1963)
27. 정순아, 간호학생의 자기노출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서강대 학논문집*, 제 10권, 485~499 (1991)

A study on the Self-disclosure in Juvenile

Jun, Eun-hee
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Health College

> Abstract <

This study was attempted to assess the self-disclosure between the talented group and the common group in high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objective and scientific data of the self-disclosure.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20 students selected from high school in K city.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Mar. 1 to 30, 1996.

The measurement tool was the Self-Disclosure Questionnaire that developed by Jourard and analysis of data was done by using %, mean and t-test.

The talented group expressed higher scores in the levels of behavior patterns than the common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score of the self-disclosure between the talented group and the common group as the levels of behavior patterns.

The self-disclosure of the talented group showed the highest to mother, while common group was the highest to sibling.